

상승, 분위기 바꿀 정도는 아니다.

21 September 2017

02.788.7178 fno@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시장 동향

✓**中 증시, 상승.** 기업 심리 개선과 정부가 내달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금융 시장 변동성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한 가운데 소비자주가 강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두고 안정이 절대적인 원칙이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화통신은 보도한 덕분에. 또한 UBS 증권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국 기업 경영자들이 향후 6개월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도 긍정적. 업종별로는 소재와 소비자업종이 두드러진 강세. 이는 투자자들이 국경절 연휴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때문. 반면 부동산주들은 하락. 중국 인민은행(PBOC)이 베이징 일부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소식의 영향. CSI300지수와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0.3%씩 상승한 3,842.81과 3,366.37로 마감. **상해종합지수 +0.3%**

✓**美 증시, 혼조.** 전일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에서 보험권 내 혼조장세로 마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성명 이후 은행주가 랠리를 펼친 끝에 S&P500과 다우지수가 7일 연속, S&P500지수는 나흘째 사상 최고 증가를 새로 씀. 연준이 올해 말에 추가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대차대조표 축소 작업을 공개한 뒤 일시 흔들렸지만,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고 다우와 S&P500 지수는 상승 반전. 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의 취약한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내 1회 추가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 연준은 또 기대됐던 대로 내달부터 4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포트폴리오의 축소 작업을 시작하기로 함. 일단 만기가 도래한 증권의 재투자 규모를 매월 최대 100억달러씩 줄이는 방식이 될 것.

다우 +0.19%, S&P500 +0.06%, 나스닥 -0.08%

✓**美 달러, 상승.** 전일 달러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로 통화바스켓 대비 하락세에서 벗어나 가파르게 상승.

유로/달러 1.1953→1.1967 +0.1%, 달러/엔 109.39→110.17 -0.7%

✓**유가, 상승.** 미국의 지난 주 원유 재고는 예상을 상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3주째 늘었지만 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함. 시장내 강세 기조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를 내년 3월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추가 감산 등을 포함한 여러 옵션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

WTI +1.88% \$50.41, 브렌트유 +2.09% \$5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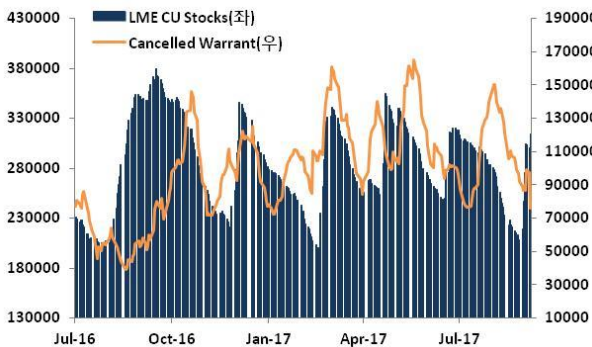
상승, 분위기 바꿀 정도는 아니다.

하락 멈췄지만, 추세는 아직 아래다. 전일 전기동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 마감했지만, 분위기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추세 여전히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다. 전일 LME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0.02% 상승한 \$6535에 마감. 이는 호재 줄고, 악재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고증가와 달러강세. 얼마전까지 전기동 상승을 이끈 재료는 크게 두가지다. 중국과 달러.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수요회복 기대로 이어지며 상승을 이끌었다. 실제 개선된 중국 경제지표와 재고감소가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거기에 달러약세 분위기도 상승에 일조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다. 중국내 상황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LME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수요둔화 우려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었던 중국 구리 현물 프리미엄도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그림 1. LME CU, 재고와 출하예정물량 추이 비교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그림 2. 중국 CIF 구리 현물 프리미엄 추이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달러의 경우에도 그렇다. 전일 연준 회의 결과로 인해 올해 말까지 달러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에 언급한 그대로다. 결국, 현 상황에서 전기동이 상승흐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물론, 가격을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생각도 없다. 중국 전인대 전까지 적당히 현 박스권 수준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알루미늄은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박스권 횡보했던 가격은 전일 급등하며 추세의 흐름을 바꾸었다. LME 알루미늄 가격은 2.72% 상승한 \$2188에 마감.

이번에도 중국이 변수로 작용했다. 중국의 생산축소 이슈가 다시 부각되며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중국의 대형 알루미늄 생산업체 차이날코(Chinalco)가 2개월 앞당겨 생산 축소에 나섰고 조만간 알루미늄의 이용 가능한 재고를 줄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격은 5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시장은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 당국의 환경 단속이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로 올해 28% 상승한 상황. 해야할 일을 미리 한 것이지만, 시장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특히, 전인대를 앞두고 당국이 공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점도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것 같다. 다른 제련소들까지 생산축소 시기를 앞당기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말 제련소 생산축소 이후 공급부족 상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분간 우려는 지속되며 상승흐름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Precious Metal

금 하락. 3주 저점으로 후퇴.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연준 정책회의 성명 발표로 1% 가량 하락, 온스당 1300달러 밑으로 후퇴.

금 현물은 뉴욕거래 후반 0.76% 하락, 온스당 1301.2달러에 거래. 뉴욕상품거래소 (COMEX)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 선물 12월 인도분은 0.44% 오른 온스당 1316.40달러에 마감.

금은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그것은 금리 인상이 채권 수익률을 높여 금처럼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들의 매력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품목별 주요 뉴스

✓ 전기동

Southern Copper Says It Is Considering Bid For Michiquillay Project
Japan August Rolled Copper Output Down 0.3% YoY
Japan August Copper Cable Sales Rise 0.4% YoY
Copper Market In 70K mt Deficit In Jun 2017 - ICSG
August Existing Homes Sales Decrease Again to 5.35M
Billionaire Agarwal to Boost Anglo Stake by Up to \$2 Billion
Fed To Begin Shrinking Its \$4.5 Trillion Balance Sheet In October

✓ 알루미늄

Aluminium Hits Five-Year High As China Supply Cuts Loom
Sohar Aluminium Gradually Restarting Production
Henan's Winter Aluminum Output Cap Lifts SHFE Prices
Jiaozuo Wanfang Aluminum Plans Output Cuts Required by Government
Granges Expanding Tennessee Rolling Mill

✓ 니켈/주석

Global Nickel Market Deficit Widens In July-INSG

✓ 납/아연

Thyssenkrupp, Tata Steel Agree To Forge Europe's No. 2 Steelmaker
European Zinc Premiums Rangebound As Backwardation Deepen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증가	Change(\$)	%	월 누적평균(Cash)
전기동	6,539.5	6,584.0	6,506.0	6,535.0	1.5	0.02%	6,478.2
알루미늄	2,129.0	2,194.5	2,122.0	2,188.0	59.5	2.72%	2,030.1
아연	3,110.5	3,154.0	3,086.0	3,135.5	25.0	0.80%	2,981.8
납	2,423.5	2,472.5	2,423.5	2,465.0	40.0	1.62%	2,357.3
주석	20,720.0	20,775.0	20,630.0	20,705.0	75.0	0.36%	20,570.0
니켈	11,145.0	11,485.0	11,145.0	11,360.0	225.0	1.98%	10,853.0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313,850	UP	13,225	238,050	75,800	14,775	1,550
알루미늄	1,303,925	DOWN	2,725	1,094,600	209,325	0	2,725
아연	266,250	DOWN	1,275	148,450	117,800	0	1,275
납	162,575	DOWN	125	106,775	55,800	0	125
주석	2,035	UP	105	1,865	170	105	0
니켈	380,736	DOWN	2,766	248,508	132,228	0	2,766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314.9	1311.3	1300.36	-0.75	1316.4	5.80
SILVER			17.146	0.01	17.334	0.055
PLATINUM	953	945	941.9	0.2	946.9	-5.80
PALLADIUM	908	907	915.77	0.22	910.15	5.85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